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 산림기술 소식 N

31번째  
산림기술 이야기



2026년 05+06월호

2026  
Vol. 31



한국산림기술인회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 산림기술 소식 ㉮

2026년 05+06월호 Vol. 31  
CONTENTS



## 산림 정보 특특!

### 읽을거리 및 정보 제공

- 02 5+6월호 여는 말
- 03 2026년 전국 산림안전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 05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7·8월 교육일정 안내
- 07 단기소득 임산물과정 및 관리감독자 교육 안내
- 09 최근 제개정 산림관련 법령 안내
- 11 여름철 예방수칙 및 뱀 대처법
- 13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정·시행
- 15 (산림청) 안전 감리 품셈 시행 안내

## 산림 이야기를 담다

### 산림 소식 및 전문가 기고

- 17 (아카이브) 스마트 산림기술 리포트
- 23 (시리즈) 새로운 숲을 만나다
- 31 (기고) 영월, "산림도 관심과 손길이 필요"
- 33 (기관 포커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복원지원센터

## 기술인회 +

### 우리 회 소식 및 공지

- 37 (인터뷰) 취임 2주년 기념 진영문 회장 인터뷰
- 41 (보도자료) 임업 기계 현장 시연회 개최
- 43 사진으로 보는 한국산림기술인회 활동
- 45 전호 이벤트 당첨자 및 5+6월호 이벤트 안내
- 47 7~8월 휴무 안내 및 숲을 담은 한 컷 모집 안내



◀ 소식지 바로보기

회원 여러분의 제안과 리뷰를 기다립니다. members@tkfea.or.kr로 보내주세요. 보내주신 의견을 선정해 소개해 드립니다. 본지에 수록된 외부 필자의 원고는 한국산림기술인회의 견해와 다를 수 있으며, 소식지 내 게재된 글, 사진, 일러스트의 무단 전재 및 복사는 금합니다.



카카오톡 친구 추가



블로그 이웃맺기



밴드 가입하기



유튜브 구독하기



## Forest letter

“  
빗줄기에도 여러분의 안전은 ‘맑음’  
”

어느덧 짙어진 푸르름 사이로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후덥지근한 날씨와 곧 시작될 곳은 비 속에서도, 우리 산림을 위해  
현장을 지키실 기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거센 비바람이 찾아오기 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안전과 건강'입니다.  
다가오는 장마철 현장 안전사고에 미리 각별히 유의하시어,  
언제나 건강한 모습으로 머물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비가 내린 뒤 더 청량해질 숲처럼 회원 여러분의 일상에도  
늘 활력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이달의 포레스트 메시지를 전합니다.



# 2026 한국산림기술인회 전국 산림안전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2026.7.13.(금)~9.11.(금)까지 모집

**참가대상** 산림기술자, 산림 관련 종사자, 산림 학과 대학생

**공모분야** 주제 택1 / 형식 택1

주제	상세내용	제출형식
산림 사업장 안전관리 노하우	안전사고 예방 실천 사례 및 안전 꿀팁	㉠ 영상 콘텐츠 or ㉡ 아이디어 제안서
산림 안전 모델 아이디어	창의적 제안을 통한 산림 안전 모델 발굴	

**심사방법** 예선심사(서류심사) ▶ 본선심사(전문 심사위원)

**공모방법** 이메일 접수(kongmo@tkfea.or.kr)

## 공모일정

신청·접수 ▶ '26. 7. 13.(월) ~ 9. 11.(금)  
 예선심사 ▶ '26. 9. 중순  
 본선심사 ▶ '26. 9. 하순  
 결과발표 ▶ '26. 10. 중순 /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안내  
 시상식 ▶ '26. 11. 27.(금) / 제6회 산림기술인의 날

## 시상내역

구분	시상내역	훈격
최우수상	상장·상금 100만원	-
우수상	상장·상금 50만원	-
장려상	상금 20만원	-

# 2026 한국산림기술인회 전국 산림안전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접수 안내

**접수기간** '26. 7. 13.(월) ~ 9. 11.(금) 18:00까지, (61일간)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kongmo@tkfea.or.kr)

## 참가구분 및 제출서류

구분	접수내용
공모자격	- 산림기술자, 산림 관련 종사자, 산림 학과 대학생 * 개인 또는 4인 이하 팀(대표 1인 제출)으로 참여 가능
공모주제 (택1)	㉠ 산림 사업장 안전관리 노하우 : 안전사고 예방 실천 사례 및 안전 꿀팁 ㉡ 산림 안전 모델 아이디어 : 창의적 제안을 통한 산림 안전 모델 발굴 * ICT·드론 활용 안전 시스템, 안전 수칙 제도 개선, 교육 개발 등
제출형식	㉠ 영 상 : 해상도 1,080x1,920픽셀 이상(가로형), 5분 이내 영상 파일 ㉡ 제안서 : 아이디어 제안서(PPT), 표지 및 목차 포함 10매 이내
제출서류	- 공통사항 [붙임1] 참가 신청서 1부. [붙임2] 저작권 활용 동의서 1부. [붙임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주제별 제출사항(택1) ㉠ (산림 사업장 안전관리 노하우) [붙임] 영상 설명서 1부 및 영상 파일 1편(mp4, avi 등) ㉡ (산림 안전 모델 아이디어) [붙임] 아이디어 제안서 1부 및 PPT 파일 1개(10매 이내)
제출방법	- 별도제출 · 산림기술자 : 자격증 사본 · 산림관련 종사자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 산림관련 학과 대학생 : 학생증 및 재학증명서 등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안전교육 이수증(가산점) · 2026년 정회원 연회비 납부 영수증(가산점)
	- 접수기간 내 이메일 제출(kongmo@tkfea.or.kr) - 이메일명 : 2026년도 산림안전예방 우수사례 공모전 신청 접수(홍길동) - 파일 명 : 공모전 서류(홍길동)_압축 권장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7월·8월 교육과정 안내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의 7·8월 교육일정을 안내드립니다 -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포털 검색창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입력 및 검색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개인회원 로그인  
(한국산림기술인회 계정 동일)



신용카드

가상계좌

교육과정 선택 후 결제수단 클릭

신청완료

신청완료 버튼 클릭 후 결제(결제창 생성) ※ PC·모바일 모두 사용 가능



※ 교육 신청 인원이 최소인원(20명) 미만일 경우 폐강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일정은 교육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회원 혜택] 취득과정 개인 정회원 및 업체 정회원 소속 기술자 교육비 할인

### 7·8월 교육과정(자격취득과정)

7월 20일(월) ~ 31일(금) / 2주간	8월 24일(월) ~ 9월 4일(금) / 2주간
제3기 산림기술자 공학취득과정	제2기 산림기술자 복원취득과정

#### 제3기 산림기술자 공학취득과정 기준 60만원 → 할인가 50만원(홈페이지 적용)

교육대상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격취득을 원하는 자  
교육방식 : 비대면(1주) + 집체교육(1주) \* 비합숙

#### 제2기 산림기술자 복원취득과정 기준 60만원 → 할인가 50만원(홈페이지 적용)

교육대상 : 「산림기술법 시행령」 제10조 [별표 3]에 따른 산림복원기술자격취득을 원하는 자  
교육방식 : 비대면(1주) + 집체교육(1주) \* 비합숙

법정보수교육은  
**1일 대면 + 4일 비대면 혼합교육**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8월 교육과정(법정보수교육)

8월 3일(월) ~ 7일(금)

### 제2기 경영+공학 통합과정(40시간)

#### 제2기 경영+공학 통합과정(40시간)

이수대상 : 산림경영기술자, 산림공학기술자 등 2개 이상 자격 소지 및 근무 기술자(매 3년마다 이수)  
※ 경영 필수(20시간), 공학 필수(20시간) 분할 신청 가능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단기소득임산물(버섯) 복합경영 교육과정 교육생 상시모집



- 교육대상** 임업후계자, 임업인, 전문임업인 등
- 교육비** 200,000원
- 교육장소** 이론 : 비대면(Zoom의) / 실습 : 추후 공지
- 교육혜택** 임업후계자 보수교육 20시간 인정
- 모집인원** 20명 ※ 추후 인원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수시모집(선착순)
- 신청방법**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문의** ☎ 1533-5160
- ※ 경로 :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접속 → 개인 회원 로그인 → 교육 신청
-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할 경우 1533-5160으로 유선접수

**교육일정**

교육일자	교육내용	교육방법
1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T(기관 및 교육과정 소개)</li> <li>·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이론</li> <li>·임산물 온라인 마케팅 등 활용</li> <li>·임업현장 안전관리</li> </ul>	비대면 (Zoom의)
2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임산물 복합경영 우수사례 및 적용방안</li> <li>·임산물 경영진단 및 개선방안</li> <li>·밤 재배 이론</li> </ul>	
3일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밤 농장 현장견학 및 실습</li> <li>·교육운영 설문조사 및 수료</li> </ul>	대면 (현장실습)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QR코드

※ 해당 교육내용은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 2026년 정기 3기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교육생 모집



**교육기간** 2026. 7. 23.(목) ~ 24.(금) / 8시간·16시간 선택

- 교육방식**
- ① 집체 16시간
  - ② 집체 8시간 + 실시간 비대면 8시간
  - ③ 집체 8시간
  - ④ 실시간 비대면(zoom) 8시간
- ※ 우편교육 방식 혼합 16시간 전체 이수 희망 시, 분할 신청

**신청방법** 온라인 선착순 접수 ([www.tkfeaedu.com](http://www.tkfeaedu.com))

**교육비 납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및 결제(가상계좌/카드결제)

**문의처** 1533-5160

### 최근 산림법령 동향

# 변화하는 산림 정책, 최신 제·개정 법령 한눈에 알아보기



[시행 2027. 5. 13.] [법률 제21626호, 2026. 5. 12., 제정]

##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임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독립된 법률로 규정하여 임도 계획 제도와 설치 및 유지·관리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임도 운영과 관련한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임도의 보호 및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임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

#### [주요내용]

임도의 규모별·목적별 설계 및 설치 기준에 따라 임도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임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임도 관할 행정청의 장과 협의 또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임도의 관리 주체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함

임도가 파손되거나 산림의 보호·관리에 필요할 경우에는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임도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행을 방해하는 등의 행위제한을 규정함



[시행 2026. 6. 16.] [대통령령 제36409호, 2026. 6. 16., 일부개정]

##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해 임시숙소로 사용하는 산촌체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담을 완화하고, 산림경영을 위한 영구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자기 소유의 임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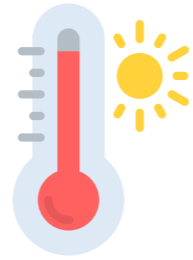
#### [주요내용]

가. 산촌체험형 쉼터의 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2조제13항제7호 및 별표 3의3 제8호카목 신설)

1) 산지 소유자가 산촌체험 및 산림경영을 위해 임시숙소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임시숙소 또는 임시숙소와 비슷한 것으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인 산촌체험형 쉼터를 임업용산지 등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산림사업장 온열질환 예방

# 여름철 예방수칙



무더운 여름철, 예방수칙 숙지로 산림 작업장 안전을 지켜주세요.

## 휴게시설 설치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그늘막과 의자가 구비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식 시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산림작업장 근로자에게 보냉장구를  
지급하고, 작업 및 휴식 시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작업장 온도 낮추기



폭염 시 야외 작업장은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서 수시로 열을 식혀야 하며,  
지급된 보냉장구를 착용하여  
체온을 낮춰야 합니다.

## 충분한 수분 섭취



더운 날씨에는 땀을 많이 흘려  
몸속 수분이 쉽게 부족해집니다.  
작업 중 충분한 수분을 수시로  
섭취해야 합니다.

# 야생동물 출몰 주의 산행 중 뱀 대처법

뱀 발견 시 최대한  
침착하게 천천히  
물러납니다



수풀지역 이동시  
스틱으로 먼저  
살펴봅니다



바위·나무 주변  
틈새에 손을 넣지  
않습니다.



뱀에 물렸을 시  
움직임을 줄이고  
즉시 신고 합니다



## 산림작업자를 지키는 ‘첫 걸음’

#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제정·시행

산림청이 현장 특성을 고스란히 반영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시 제2025-25호)을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 “현장과 동떨어진 기준을 바로잡다”

벌목 중심의 기존 기준으로 인해 조재·집재·산림토목 등 다양한 산림 현장의 특성을 담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산림 고유의 작업 환경과 위험 요인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여,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판단의 잣대를 현장에 맞게 정립했습니다.

### “해마다 10명대, 정체된 사망사고 감축”

험한 지형과 폭염 등 산림 현장은 인력 의존도가 높아 재해 위험이 매우 큼니다. 재해율은 줄고 있으나 사망사고(2019년 17명 → 2023년 17명)는 정체되어 있어, 현장 작업자를 지킬 실효성 있는 기준이 절실했습니다.

###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다”

이번 지침은 산림 현장 종사자들의 실무 목소리와 산림·안전·법제 전문가들의 자문을 전적으로 반영해 현장 실효성을 극대화했습니다. 특히 산림기술연구원이 수행한 「산림사업 표준안전 작업지침 개발 연구(2024.11.)」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으며, ▲총칙 ▲일반수칙 ▲개인보호구 ▲도구·장비 취급 ▲작업별 유의사항 등 총 5개의 큰 틀로 구성되었습니다.



### 혼자는 NO! 함께 OK (제19조)

벌목·조재·집재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은 반드시 **최소 2명 이상이 함께 조를 이루어 수행**해야 합니다. 산림현장에서 혼자서 작업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 술 한 잔도 절대 NO! (제4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 상태에서의 작업은 전면 금지합니다.



### 위·아래 동시 작업 금물 (제6조)

벌목이나 가지치기가 진행 중인 작업지 아래쪽에서는 작업과 통행을 모두 멈춰야 합니다.



### 높이 2배 이상 대피 (제38조·제40조)

벌목 작업 시 벌목할 나무 높이의 2배 이상 거리를 두고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 대피 장소 미리 선정 (제46조)

작업 전, 나무가 넘어가는 방향의 반대편 45도 측면에 안전한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해 둡니다.



### 날씨가 나쁘면 STOP! (제15조)

강풍, 호우 등 악천후로 인해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을 즉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 보호구는 선택 아닌 필수 (제23~29조)

안전을 위해 검증된 안전모, 작업복, 안전화, 귀덮개를 상시 올바르게 착용해야 합니다.

# 산림청 안전 감리 품셈 시행

- 2026. 시행 예정 -

최근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발생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한 산림사업장을 조성하기 위한 '안전관리 감리 품셈'을 시행합니다. 숲아베기 등 벌목작업 시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 감리 품셈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품셈개발 목적

- 산림사업은 열악한 작업 환경(급경사·장애물·기상 등)으로 사고 위험 상존  
\* 업종별 재해율(순위) : 광업 → 건설업 → 운수창고통신업 → 어업 → 제조업 → 농업 → 임업 順
- 「산림기술법」에서 감리 역할로 규정하고 있는 '사업현장 재해예방 및 안전 관리 지도'기능을 적극 활용 안전관리 감리 신설을 통해 산림사업장 안전사고 예방하고자 함.

## 품셈(안) - 안전관리 감리

(단위 : 인/회)

적용구	투입인원수	인력구분
안전관리 감리(상주)	1.0	중급기술자
안전관리 감리(비상주)	0.5	중급기술자

주1) 본 품은 숲아베기 등 벌목작업 시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판단되어 주3회 이상 현장 안전관리 감리 실시 감리원이 작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업 작업요령 교육과 대상지 위험지 점검 수구 추구베기 실시여부 등 안전과 관련된 사항 확인에 소요되는 품으로 상주(8시간), 비상주(4시간) 적용

주2) 안전관리 감리는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16시간 이상 이수한 자만 할 수 있다.

## 산출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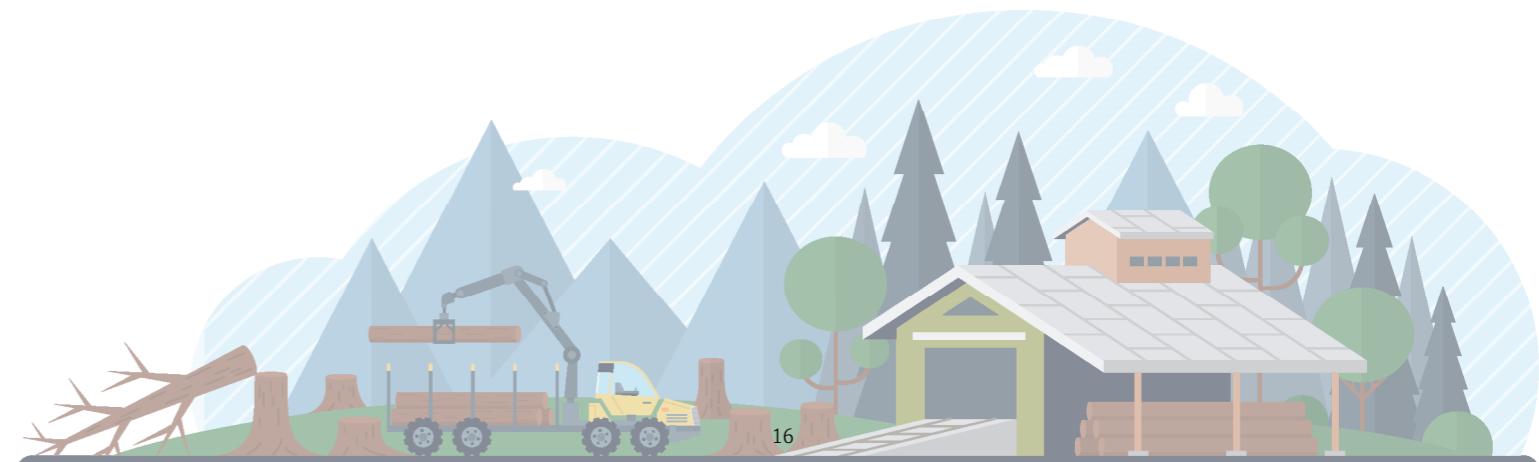
- 안전관리 감리 배치 품셈(산림사업장에 적용)
  - 안전관리 감리 상주 1회당 1.0인, 비상주 1회당 0.5인 중급기술자 적용
  - 안전관리 감리업무자는 산림사업장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총 1회당 상주 480분, 비상주 240분 소요되는 것으로 산정하였음
  - \* 1회당 총 소요 시간(상주, 비상주)은 총 작업 시간이며, 휴게시간 포함

## 취업 제한 유해·위험 작업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고용노동부령, 별표1)

연 번	작 업 명
23 (신설)	벌목작업(가슴높이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나무를 기계톱을 이용하여 인력으로 베는 작업에 한정)

※ (자격 등)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경영기술자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교육기관이 시행하는 벌목(기계톱) 전문 과정 교육이수자로 함

\* 벌목 작업자의 자격취득 및 교육이수 등을 위해 영 개정일로부터 1년간 경과규정을 둠



# Archive 스마트 산림기술 리포트

“산림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고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체계적인 산림 기술 정보를 전합니다”



## CHAPTER 2

### 고성능 임업기계와 임목수확작업시스템

글·사진\_경북대학교 임학과 박상준 교수



디스크톱방식 펠러번처

### 펠러번처(Feller-buncher, 벌도 집적기)

펠러번처(Feller-buncher, 벌도 집적기)는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지역의 임목을 유니트 그립(unit grip)으로 집어서 벌도하고, 집재에 편리하게 일정한 장소에 모으는 집적작업 2가지 공정의 임업기계다. 펠러번처는 기본적으로 전목집재의 스키더(Skidder, 견인집재차량)와 조재작업의 프로세서(Processor, 조재기)의 조합에 의한 전목생산의 임목생산작업시스템인 펠러번처형 임목수확작업시스템(Feller-buncher type logging operation system)에 주로 사용되는 차량계 고성능임업기계다.

트리펠러(Tree feller)는 단순히 벌도만 할 수 있으나 펠러번처는 벌도뿐만 아니라 임목을 붙잡을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고 있어서 벌도되는 나무를 집재작업이 용이하도록

모으는 기능(bunching)을 가지고 있는 차량계 고성능임업기계다. 펠러번처의 특징은 소경목일 경우는 벌도목을 땅위에 내려놓기 전에 벌목한 나무를 몇 본씩 잡을 수 있는 장치(accumulator)가 있어서 작업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임목을 벌도하는 장치는 유압 전단(剪斷)가위식(hydraulic shear)과 디스크톱(circular disc saw) 방식, 체인톱(chain saw) 방식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펠러번처는 차체가 기울어져도 벌도장치를 임목에 수직되게 하고 작업원(operator)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운전석과 봄의 플랫폼(platform)이 항상 수평을 유지할 수 있는 경사 보정장치(tilter)가 부착되어 전후 및 좌우로 기울일 수 있는 틸팅(tilting)기능이 있으며, 절단능력이 직경 50~60cm까지 가능한 대형 기종도 있다.



전단가위식 펠러번처

### 스키더(Skidder, 견인집재차량)

스키더(Skidder, 견인집재차량)는 주로 펠러번처나 체인톱으로 벌목된 나무를 스키더의 뒷면에 부착되어 있는 그레플로 집거나 원치로 끌어당겨서 나무의 한쪽을 들어올려 견인하는 임업전용 트랙터의 총칭으로서 임업전용으로 개발된 차체굴절식 임업용 트랙터(articulated frame steered tractor)를 일명 스키더라고 한다.

이는 지면끌기식 집재작업을 위해 전용기계로 개발된 것으로서 동일한 크기의 대형바퀴(4개)와 차체굴절식 조향장치를 구비한 것이 특징이다.



크롤러식 스키더

험한 지형에서 작업능력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강하여 과거부터 임목수확작업에 사용되어 오던 대표적인 임업전용 트랙터이며, 주로 전목이나 전간집재에 널리 사용되는 고성능임업기계이다. 스키더는 기본적으로 벌도·집적작업의 펠러번처(Feller-buncher, 벌도기)와 조재작업의 프로세서(Processor, 조재기)의 조합에 의한 전목 또는 전간생산의 임목생산작업시스템인 펠러번처형 임목수확작업시스템(Feller-buncher type logging operation system)에 사용되는 차량계 고성능 임업기계다.

원래 스키더는 단어의 뜻 그대로 전목과 전간재의 끝부분을 차체에 매달아 지면끌기식 집재(ground skidding)에 사용되는 트랙터를 통칭하는 용어로서 크롤러 바퀴식 트랙터도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다.

스키더는 크롤러식과 타이어식 스키더로 크게 나누고 이를 다시 원치가 부착된 케이블스키더(cable skidder)와 그레플이 부착된 집게식 스키더(grapple skidder), 집게가 트랙터의 차체에 거꾸로 얹혀 있는 모양의 크램뱅크 스키더(clam bunk skidder)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차체굴절식 임업용 트랙터는 불과 20~30마력의 엔진출력에 중량 2~3톤의 소형도 있으나 대형 집게식 스키더 중에는 엔진출력이 170마력에 15톤이 넘는 대형기종도 있다. 크램뱅크 스키더는 적재중량의 대부분이 차체에 얹히므로 적재용량이 큰 포워드더의 차체를 이용하며, 별도로 전간재를 크램뱅크에 실을 수 있는 집게가 달린 크레인이 탑재되어 있다.



타이어식 스키더

### 프로세서(Processor, 조재기)

프로세서(Processor, 조재기)는 체인톱이나 펠러번처 등에 의해 벌도된 전목을 스키더나 타워야더로 토장이나 임도상에 집제한 후, 집재목의 전목(full tree)에 대해 가지를 제거하는 가지훅기(delimiting), 집재목의 길이를 측정하는 조재목마름질(measuring), 통나무자르기(bucking) 등 일련의 조재작업을 한 공정으로 수행하여 한 곳에 모아쌓기를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다공정 임업기계를 말한다.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벌도·집적작업의 펠러번처(Feller-buncher, 벌도기)와 견인집재작업의 스키더(Skidder, 견인집재차량)의 조합에 의한 전목 또는 전간생산의 임목생산작업시스템인 펠러번처형 임목수확작업시스템(Feller-buncher type logging operation system)에 사용되는 차량계 고성능임업기계다.

프로세서는 분리형인 투그립 프로세서(two grip processor)와 일체형인 싱글그립 프로세서(single grip processor)로 나눌 수 있고, 붐의 형태에 따라 너클붐방식과 텔레스코픽붐방식이 있다. 한편, 그레플로 잡은 원목은 금속제 또는 고무로 만들어진 송재롤러(feed roller)에 의하여 가지훅기작업 및 절단위치 결정을 위한 송재작업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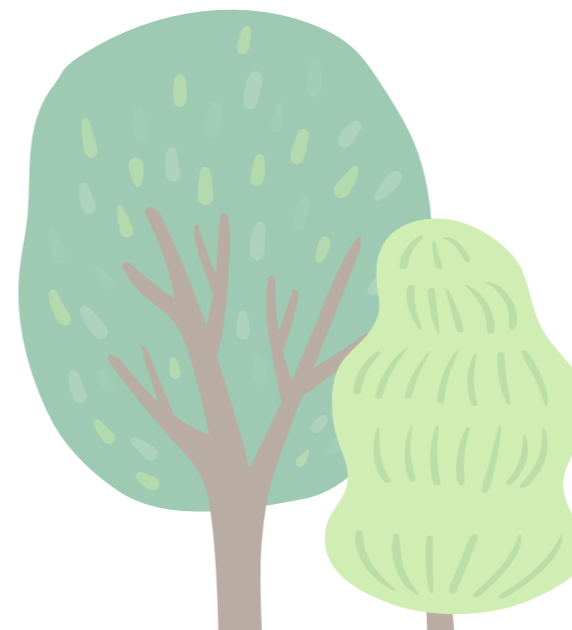


너클 붐 방식



텔레스코픽 붐 방식

경우에 따라서는 신축식 암(telescopic arm)에 의하여 원목의 가지훅기가 이루어지기도 하며, 북미 지역에서는 스트레이트암(straight arm)에 의하여 가지훅기와 송재작업이 이루어지는 기종을 딜림버(Delimiter)라고도 하는데, 토장에서 가지가 붙은 상태로 집재된 전목을 대상으로 작업을 실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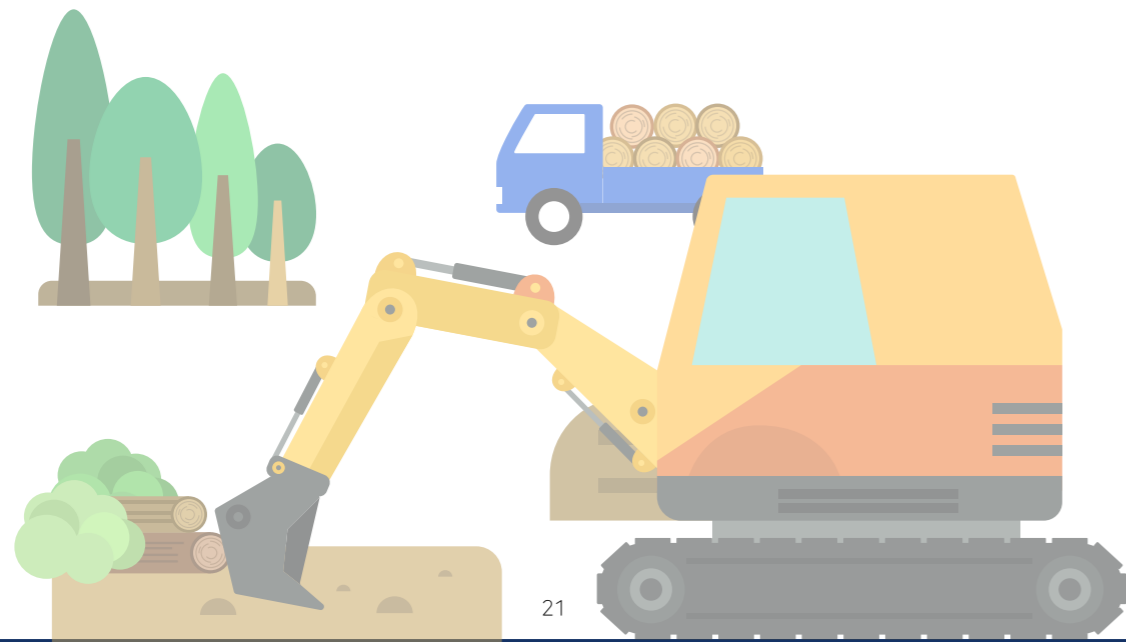
통나무자르기작업은 유압식 체인톱에 의하여 이루어지거나 고속 회전하는 디스크 톱(disk saw)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가지훅기작업은 그래플에 부착된 고정식 또는 유동식 칼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프로세서의 성능은 송재속도와 송재력, 절단속도, 가지훅기작업의 정밀도, 최소 및 최대 작업가능 직경 등에 따라 달라진다.

송재력은 보통 1~3톤, 송재속도는 2~4m/초, 가지 훅기 작업가능 직경은 4~50cm 정도이며, 체인톱의 체인 회전속도는 절단시 원목이 자중에 의해 쪼개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초당 30m 이상으로 고속 회전한다. 한편, 조재와 가지훅기 기능을 가진 프로세서와는 달리 그래플에 유압식 체인톱이나 디스크 톱을 부착하여 조재된 원목을 임의의 길이로 절단하는 기능을 가진 것을 그래플톱(Grapple saw)이라고 한다.

### 펠러번처형 임목수확작업시스템

펠러번처형 임목수확작업시스템(Feller-buncher type logging operation system)은 펠러번처에 의해 벌도하고 스키더로 전목집재한 뒤, 프로세서로 조재작업을 실시하는 (펠러번처+스키더+프로세서)의 조합에 의한 작업시스템이다. 이 임목 수확 작업 시스템은 캐나다나 미국 남부 및 동부지방 등에서 지상집재작업시스템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시스템이다.

주로 작업도와 집재로가 많이 개설되어 있고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산림에서 택벌작업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작업시스템이며, 3인의 조별작업으로 1일 목재 생산량이 보통 50~100m<sup>3</sup>, 연간 목재생산량이 약 8,000~10,000m<sup>3</sup> 정도를 목표로 한다. 최근 일본에서도 일부 완경사지에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① 벌도 집적기(펠러번처)



③ 조재(프로세서)

### 펠러번처형 임목수확작업시스템의 모식도



② 집재(스키더)

※ 사용된 일부 이미지는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숲을 만나다”시리즈

# 슬로베니아 벨리카 플라니나 숲

글·사진\_한국산림기술인교육원 배상원 원장

벨리카 플라니나(Velika Planina)는 슬로베니아 수도 류블랴나에서 차로 1시간 거리인 북쪽으로 50km 떨어진 슬로베니아 캄니크-사빈야 알프스(Kamnik-Savinja Alps)에 위치한 카르스트화된 산악 고원이다.

유럽 최대 규모의 고산 목초지로 면적은 5.6km<sup>2</sup>, 해발 약 1,500~1600m 사이에 있으며, 가장 높은 곳은 그라디슈체(Gradišče, 1,666m)이고, 전통 목동 마을이 자리 잡고 있다.

사진 1 = 전통 목동 마을 전경



사진 2 = 주차장 주변 독일 가문비나무 숲

전통 목동 마을에는 가문비나무 판자로 만든 낮은 지붕의 타원형 지붕을 가진 독특한 건축 양식의 오두막(Bajta)이 140여 채 있는데 전통적인 거주공간으로 확장된 지붕의 빈공간은 가축을 보호하기에 적합하다. 마을에서 프레스카르 박물관(Preskar's Hut)과 눈의 성모 마리아 예배당이 있다. 마을에는 상주 주민이 거의 없지만, 여름철(6월~9월)에는 목동들이 소를 방목하며 거주한다. 이 목동 마을은 유럽에서 이 규모로 보존된 몇 안 되는 목축민 마을 중 하나로, 겨울에는 스키, 여름에는 하이킹을 즐길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사진 3 = 고원지대 초지와 독일 가문비나무

벨리카 플라니나는 캄니슈카 비스트리차 계곡이 있는 케이블카나 산중턱까지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하다.수도 류블라냐에서 차량으로 해발 1400m에 있는 우시베츠(Ušivec) 주차장에 도착하면 주차장 주변으로는 독일 가문비 나무들이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다.

해발이 높은 지역이어선지 수관폭이 좁게 자라서 나무가 가늘고 길게 자란 모습으로 보이는 것이 특징적이다. 수고 20~30m의 독일 가문비나무 숲에 난 오솔길을 따라 산 위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독일 가문비나무는 사라지고 평평한 고원지대가 나타난다. 독일 가문나무는 군데 군데 무리로 자라고 있는 고원지대의 초록빛 초원이 넓게 펼쳐져 있다.

초원으로 난 평평한 오솔길을 가다 보면 멀리 독일 가문비나무 숲이 보이고 초원 일부에는 노랑, 하양 그리고 보라색 꽃들이 가득 자라고 있어 마치 꽃밭에 들어선 것처럼 느껴진다. 또한 오두막집 띄엄띄엄 자리를 잡고 있어 목가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초원 지대에는 노랑색 금매화, 조밥나물과 자주색 물망초, 용담 등이 자라고 있어 더 친숙해 보인다. 초원 위의 나지막한 언덕을 지나 안으로 더 들어가면 오두막집 수십 채가 들어서 있는 목동마을이 나타난다. 마을 건너편 언덕 위에는 눈의 성모 마리아



사진 4 = 초원의 야생화 (조밥나물)

예배당(해발 1,560m)이 있는데 이 예배당은 2차 세계대전 때 소실된 것을 1988년에 재건한 작은 예배당으로 이곳에 올라서면 마을 전체를 조망할 수가 있다. 마을에는 크고 작은 오두막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중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형태의 오두막은 목동들의 과거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프레스카르 박물관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을 주변으로 평평하고 넓은 웅덩이나 땅이 함몰된 지형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 지역이 석회암지대로 침식이 일어나면서 생긴 것이다.

마을을 뒤로하고 산으로 더 오르다 보면 유럽 낙엽송이 단목으로, 독일 가문비나무가 무리로 자라고 있는 것이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 그라디슈체로 올라가면 수고 1m 정도의 키 작은 무고 소나무가 정상 부근에 가득 자라고 있어 멀리서 보면 진초록 양탄자를 깔아 놓은 것처럼 보인다.

그라디슈체에서 보이는 초원, 목동마을 그리고 그 뒤로 보이는 눈 덮인 산의 풍경은 이 지역이 캄니크-사비냐 알프스라고 불리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캄니슈카 비스트리차 계곡 방향으로 가다보면 나타나는 방문객을 위한 식당, 숙소 등이 이 지역에 어울리는 오두막이나 목조 건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새롭게 보인다.

사진 5 = 초원의 야생화 (금매화)



정상 북서쪽으로는 높다란 바위 산들이 줄지어 서있는데 제일 왼쪽에는 캄니크-사비냐 알프스에서 가장 높은 그린토베츠(Grintovec, 2,558m)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는 스쿠타(Skuta 2,532m), 플란야바(Planjava, 2394m)가 줄지어 자리 잡고 있다. 해발이 높은 산이 어서인지 늦은 봄까지 정상부와 정상부 계곡에 늦봄까지 하얀 눈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이 스키 지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라디슈체에서 계곡 쪽으로 내려가면 눈잣나무 숲은 사라지고 독일 가문비나무와 유럽 낙엽송이 같이 자라는 침엽수 혼효림이 나타나는데 봄에는 짙은 초록색 독일 가문비나무 잎과 유럽 낙엽송 연초록색 잎은 숲을 다양한 초록색 세상을 만들어 내고 있다.



사진 6 = 그라디슈체의 무고 소나무

숲 아래쪽 햇빛이 많이 드는 공간에는 고산지대에 자라는 보랏빛 꽃이 피는 높이 30~4cm의 윈터 히스(Winter Heath)가 양탄자처럼 바닥을 가득 채우고 있고 중간 중간에 초록빛 유럽 블루베리가 자라고 있다. 아래로 더 내려가면 회색빛 줄기의 너도밤나무와 독일 가문비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는데 연초록 너도밤나무 사이에 서있는 짙은 초록빛 독일 가문비나무가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캄니슈카 비스트리차 계곡으로 더 내려가다 보면 경사가 심한 곳에는 유럽 낙엽송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고, 독일 가문비나무는 듽성듬성 자리를 잡고 있고, 계곡부 낮은 지대에는 너도밤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어 해발고에 따라 자라는 나무들이 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사진 7 = 그라디슈체에서 보이는 눈 덮인 고산 연봉 그린토베츠(2,558m), 오른쪽 스쿠타(2,532m), 플란야바(2394m)

사진 8 = 보랏빛 윈터 히스 꽃

사진 9 = 낙엽송 독일가문비 혼효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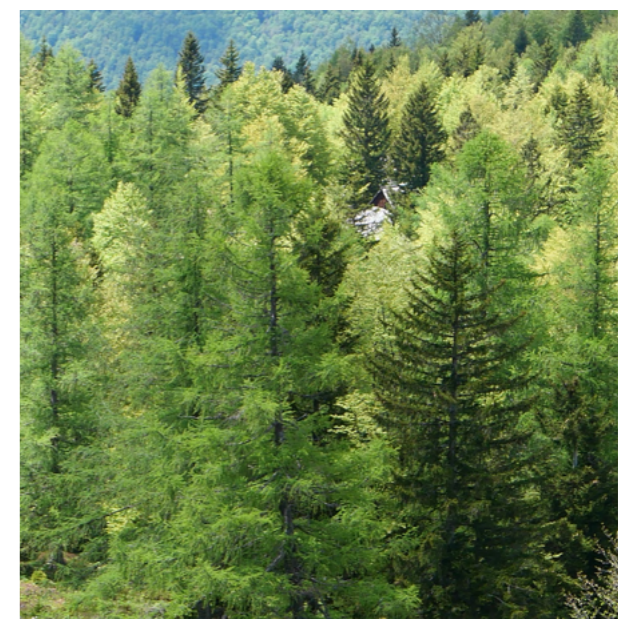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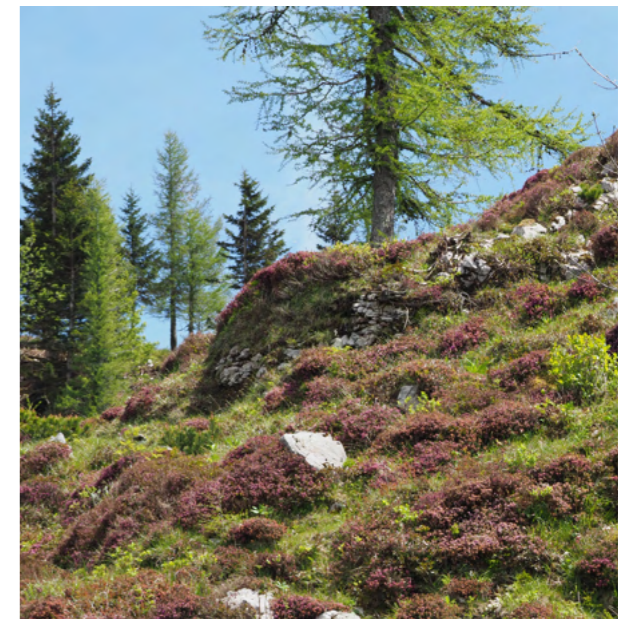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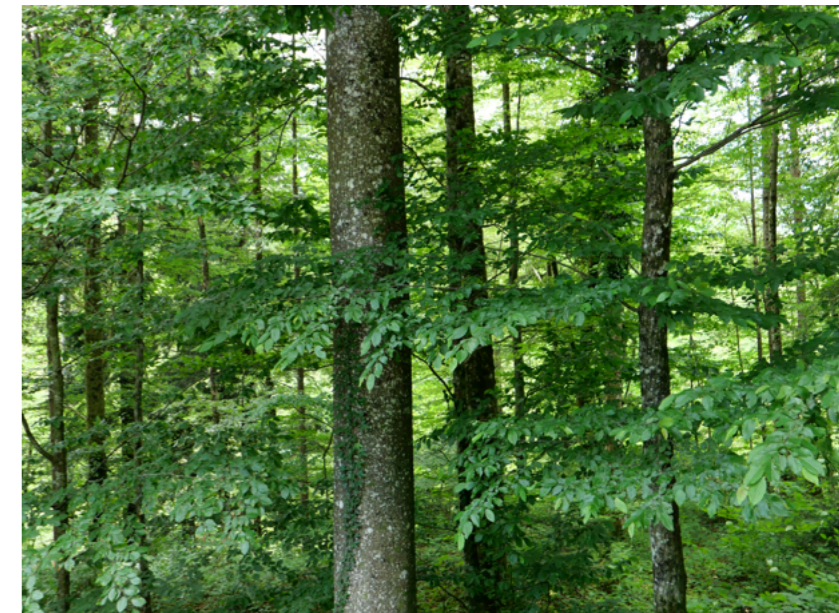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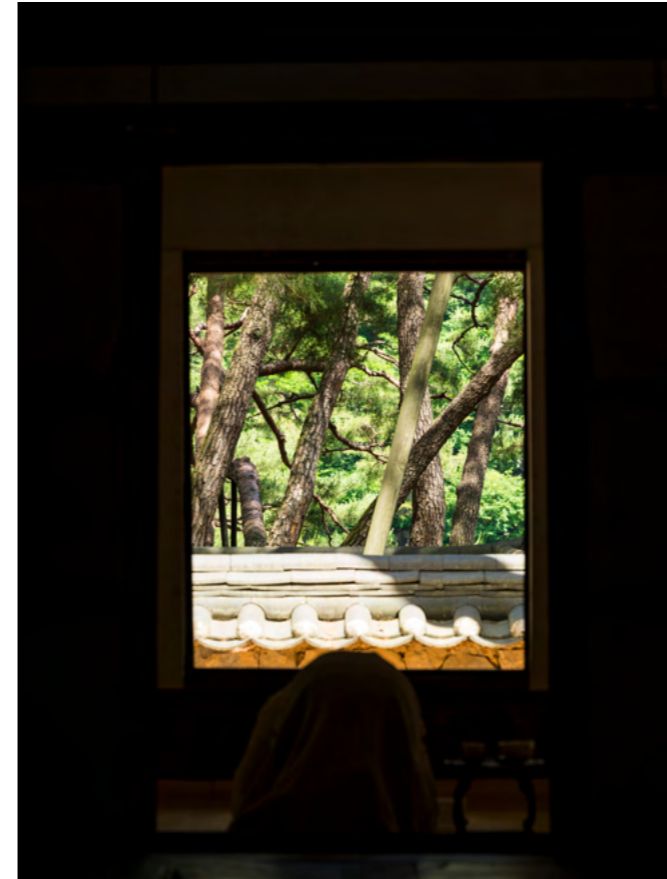
사진 10 = 독일가문비 너도밤나무 혼효림

벨리카 플라니나는 해발 1,500~1,600m 지대에서는 고원 초원지대로 전통적인 산악지 목축과 목동 마을을 체험 할 수 있는 곳인 동시에 등산 및 스키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지역이기도 하다.

또한 고원지대의 다양한 식생, 야생화 그리고 해발고에 따라 눈잣나무, 독일가문비나무, 유럽 낙엽송, 너도밤나무 숲들이 분포하고 있어 생태적 가치도 높은 지역이다. 벨리카 플라니나는 고원 지역 목동마을 등 문화적 가치, 다양한 휴양 기능 그리고 다양한 야생화, 숲 등의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 여겨진다.

사진 11 = 사면 하부 너도밤나무 숲





## 한국산림기술인회 기고 충절의 고장 영월, “산림도 관심과 손길이 필요”

글\_정 병 걸 한국산림기술인회 감사 및 임업인(독림가, 篤林家)

“나는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계유정난이 조선을 뒤흔들고 어린 왕 이흥위는 왕위에서 쫓겨나 유배길에 오른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대감을 우리 광천골로 오게 해야지” 한편, 강원 특별자치도 영월 산골 마을 광천골의 촌장 엄흥도 옹은 먹고 살기 힘든 마을 사람들을 위해 청령포를 유배지로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촌장이 부푼 꿈으로 맞이한 이는 다름 아닌 왕위에서 쫓겨난 이흥위였다.

유배지를 지키는 보수주인으로서 그의 모든 일상을 감시해야만 하는 촌장은 삶의 의지를 잃어버린 이흥위가 점점 신경 쓰이는데... 1457년 청령포, 역사가 지우려 했던 이야기. <왕(王) 사 남(男)>지난 2월 4일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개봉 이후 누적 관람객 1,688만 명을 기록하며, 영월의 청령포(淸瀟浦), 장릉 등 명승지가 관광의 명소로 부각되었다. 과거에는 매년 약 2천여 명 남짓이던 관광객 수가 개봉

이후 5개월간 약 52만 명이 구름처럼 모여 영월 읍내의 지역경기도 활기가 돌고 있다. 주목을 받고 있는 영월의 청령포는 어린 나이에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긴 단종의 유배지로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여 마치 섬과 같고 단종이 한양을 바라보며 시름에 잠겼다고 전해지는 노산대, 망향탑 돌무더기 등 슬픈 역사가 남아 있는 유서 깊은 곳이다. 또한 천연기념물인 약 600년 이상된 관음송이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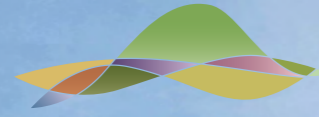
산림 204,241㎡(약 6만 1천여 평)의 면적을 국가지정 명승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영월군에서는 군내의 수백년 소나무 군락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어 기개와 절개를 상징하는 소나무를 군목(郡木)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지난 5월말에 청령포를 방문하여 관광한 바 있다.

나룻배는 강폭 약 150m 거리를 40여 명을 태우고 약 5분 소요로 왕복 중이었다. 주말이라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복잡하고 청령포를 건너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지체되었다. 이제는 관광지도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 나룻배에 구멍조끼는 보이나 안내방송과 기본적인 설명은 없었다. 어린이나 노약자를 위한 배려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또 약 6만 여평의 소나무림과 어소(御所)의 규모에 비해 건물화재, 산불발생 또는 안전사고 시 신속한 재난대처가 필요해 보인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가족과 함께 청령포를 둘러보면서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오지랖 넓은 직업병인가?

청령포 주변의 수백년 된 낙낙장송림 주변에는 어린 소나무가 군락지어 자라고 있다. 그냥 두기보다는 산림내 숲가꾸기가 필요해 보였다. 명승지의 산림도 방치보다는 관심과 손길이 있어야 될 것이다. 요즘 유행하는 ‘핫플레이스’ 장소는 가치를 더하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 기개와 절개를 상징하는 우리의 향토종인 소나무는

이곳 청령포에서 약 600여 년 동안 단종을 기리며 자리를 지켜왔다. 청령포 내와 영월 서(西)강 주변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소나무 군락지에 대하여는 나무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거름주기, 가지치기, 숲아베기 등 숲가꾸기를 적극 추진하여 후손들에게 “국가 문화 유산”으로서의 소나무의 가치를 전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소개합니다”

# 산림생태복원 전문기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복원지원센터

글·사진\_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복원지원센터 제공



UN총회에서 생태계복원 10개년 기본 계획(2021~2030)이 의결됨에 따라('19.3.), 국제적인 산림복원 추세는 점차 생태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발맞춰 우리 정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제42조의3을 근거로 《제1차 산림복원 기본계획(2020~2029)》을 수립하였습니다.



## 산림생태복원 전문기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산림청 내 산림생태 복원과를 신설하고('21), 기후대별 수목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 기능 강화 및 실행조직을 확충하는 등 추진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UN총회에서 생태계 복원 10개년 기본 계획(2021~2030)이 의결됨에 따라('19.3.), 국제적인 산림복원 추세는 점차 생태 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패러다임에 발맞춰 우리 정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정비하고 제42조의3을 근거로 《제1차 산림복원 기본계획(2020~2029)》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담부서로 산림청 내 산림 생태복원과를 신설하고('21), 기후대별 수목원의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 기능 강화 및 실행조직을 확충하는 등 추진 동력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은 국가 산림복원 정책의 과학적 근거를 제공하는 '산림복원지원센터'와 실제 복원사업 현장에서 필요한 복원용 자생식물을 생산 하고 공급하는 '자생식물종자공급센터'로 지정되어 정책지원을 밀도있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6월호**에서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복원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해** 대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후 모니터링하는 “산림복원지원센터”

기후변화에 따른 대형산불 확산과 과도한 개발 압력 등으로 부득이하게도 산림 훼손이 발생합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복원지원센터에서는 훼손된 삼림을 대상으로 그 실태를 조사하고 참조 생태계에 근거하여 복원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2022년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울진 보호구역 일대입니다. 다자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이해관계자 합의안을 먼저 마련하고 과학적 평가(위성·현장 정밀 진단을 통한 자연회복력 평가)와 사회정책 요소(국민의 안전과 경관적 사항)를 마스터플랜을 도출하였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복원지원센터에서 수립한 기본 계획을 근거로 산림청은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울진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일대에서 산림청과 지자체가 주도하여 연차별 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복원지원센터에서는 복원 완료 이후 1,2,5,10년에 맞춰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합니다. 복원의 목표 달성 정도와 현황을 분석하여 유지 및 관리를 위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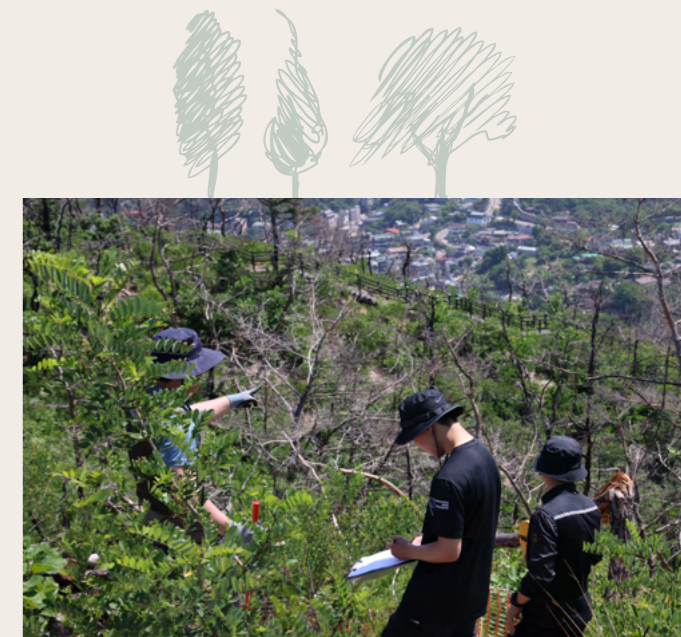
##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기여로 “세계적인 인정을 받다”

「동해안 보호구역 산불피해지 산림생태복원 기본계획(2023-2027)」에 근거하여 추진 중인 복원사업은 2025년 10월 FAO와 UNEP(유엔환경기본계획)이 선정한 세계 복원 우수 사례로 지정되는 쾌거를 얻기도 했습니다. 합리적인 복원 계획 수립부터 모니터링까지, 복원사업 일련의 과정에 대한 세계적인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첫째, 한정된 자원과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과학적인 분석으로 공간을 구획하여 연차별 복원사업의 우선순위를 마련한 것, 둘째, 복원목표 달성을 위해 국민과 기업이 참여하는 ‘기부의 숲’ 문화를 새롭게 만든 것, 셋째,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의 임업인에게 복원용 자생식물의 종자를 제공하고 재배기술을 보급함으로써 임·농가가 이들 식물을 키워 소득을 얻는 체계를 마련한 것 등이 특히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현장 실태조사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한 “계속되는 노력”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복원지원센터는 현장과학을 기반으로 산림복원 정책을 지원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2025년 의성발 대형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산림의 실태를 조사하여 주왕산 국립공원 일대 보호구역(199ha)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생물다양성을 고려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토대로 복원을 위한 단초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백두대간 생태축, 정맥, 울릉도와 독도 등에 대한 훼손 현장을 조사하여 복원 대상지를 발굴하고 복원 이후의 효과성을 분석합니다. 기업과 단체와 국민이 다양한 복원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또한 고민합니다. 계속되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산림복원지원센터는 훼손된 숲을 되살리자고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복원용 자생식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자생식물종자공급센터’ 이야기로 8월호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취임 2주년 특별 인터뷰

# “흔들리지 않는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진영문** 회장



## “현장 중심의 혁신과 소통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립의 토대 다질 것”

한국산림기술인회 진영문 회장이 제4대에 이어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한 지도 어느덧 2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년간 진영문 회장은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강화, 조직의 안정 및 화합, 그리고 국회와의 정책 간담회를 통한 산림기술인의 위상 제고 등 안팎으로 여러 성과를 이뤄내며 내실을 다져왔다. 본회는 취임 2주년을 맞아 그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산림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 나아갈 미래 비전과 청사진을 들어보았다.

### Q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한국산림기술인회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제4대에 이어 제5대 회장으로 취임한 지도 어느덧 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시간은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음과 동시에, 우리 산림기술인의 미래를 책임져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감을 절실히 느끼게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무엇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산림기술의 가치와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기후 위기와 산림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우리 한국산림기술인회는 흔들림 없이 전문성과 책임을 바탕으로 산림기술과 안전으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쉼 없이 전진해 왔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회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현장 중심, 미래 지향, 그리고 세계로 확장하는 산림기술’이라는 분명한 방향 아래, 대한민국 산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 Q 지난 한 해 주요 성과나 큰 변화는?

지난 2년을 돌아보면, 우리 한국산림기술인회는 산림기술의 가치를 증명하고 조직의 내실을 다지는 의미 있는 변화들을 이뤄냈습니다.

#### 첫째, 기관의 대외적 위상과 전문성이 강화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축적된 기술력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기술인회가 산림기술 및 안전 관리의 핵심 기관임을 대내외에 각인

시켰습니다. 특히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업무 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공고히 구축하였으며, 이는 기술인회의 전문성을 한 단계 높이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 둘째, 조직 내부의 결속력과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과거 다소 높았던 인력 유동성을 해결하기 위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구성원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조직이 눈에 띄게 안정화되었으며, 이러한 내부적 화합은 곧 업무 몰입도 향상과 기관의 성장동력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아가 직원들의 결혼, 출산 등 기쁜 소식이 이어지는 활기찬 조직 문화로 변모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보람을 느낍니다.

#### 셋째, 정책적 영향력 확보를 위한 소통 행보를 넓혔습니다.

국회와의 적극적인 정책 간담회와 소통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입법 및 정책 과정에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이를 통해 산림기술인의 역할과 중요성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하였으며, 기술인회의 사회적 위상을 한층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 넷째, 미래지향적 조직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정관 정비를 추진해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이는 단기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중장기 전략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보완을 통해 더욱 탄탄한 기술인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 Q 회원들과의 소통 노력은?

저는 평소 ‘소통과 화합’을 조직 운영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공감과 참여가 없다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전국 각지의 지회를 직접 방문 하여 우리 회원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공식적인 회의 석상에서, 때로는 현장의 격의 없는 자리에서 진솔한 대화를 이어가며 산림기술인 여러분이 느끼시는 생생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수렴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이야말로 조직의 신뢰를 쌓는 가장 기본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의견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의 고민을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아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는 가장 정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소통은 우리 조직을 하나로 묶는 강력한 결속력이자,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고, 현장에서 함께 해답을 찾는 ‘살아있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Q 중점 추진 사업 또는 발전 방향은?

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는 명확합니다.

**첫째, 각 지회의 활성화를 통해 조직의 근간을 더욱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지역 조직의 역량이 곧 중앙의 경쟁력이라는 신념 아래, 지회 중심의 자율적인 참여와 소통을 이끌어내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지는 현장 중심 조직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둘째, 산림기술인 종합교육센터 건립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산림 환경 속에서 우리 기술인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교육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종합교육센터가 산림기술 발전의 핵심 거점이자 인재 양성의 요람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셋째, 산림기술법 개정과 ‘산림기술인의 날’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제도적 기반이 튼튼해야 기술인의 권익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특히 ‘산림기술인의 날’ 제정을 추진하여 국회에서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산림기술인의 긍지와 사회적 위상을 대내외에 널리 알리겠습니다.

**넷째,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과 컨설팅 역량 강화에 앞장서겠습니다.** 현재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안전보건 정책에 발맞춰, 우리 산림 산업 현장에 안전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의 초석을 다지는 일입니다. 선제적인 안전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여 모두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산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 Q 임기 동안 우선순위 과제나 목표는?

남은 임기 동안 제가 반드시 완수하고자 하는 목표는 우리 한국산림기술인회가 ‘흔들리지 않는 자립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 조직의 확고한 미래 비전을 정립하겠습니다.** 전 구성원과 회원이 한마음으로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방향을 설정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의 청사진을 그리겠습니다.

**둘째, ‘산림기술인 종합교육센터’ 건립을 실현하겠습니다.** 단순한 시설을 넘어, 우리 기술인들이 세계적인 전문성을 갖추고 자부심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는 핵심 거점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현장 중심의 산림기술법 개정을 완수하겠습니다.** 산림 기술과 안전 분야에서 우리 기술인회가 명실상부한 중심 기관으로서 확고한 기준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틀을 다지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책임 있는 전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 Q 마지막으로 회원분들께 한 말씀.

끝으로, 오늘의 한국산림기술인회가 있기까지 늘 변함없는 신뢰와 응원으로 함께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현장의 어려운 순간마다 보내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격려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운 확고한 목표와 오늘의 실천이 곧 산림기술인의 더 나은 내일을 만든다는 믿음으로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 소중한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우리 한국산림기술인회의 발전과 밝은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한국산림기술인회 유튜브 바로가기>

# 기술인회 NEWS

## 한국산림기술인회·한국원목생산협회 임업 기계 현장 시연회 개최

임업 기계 활용한 안전 공법  
시연 등



한국산림기술인회와 한국원목생산협회가 지난 6월 15일 원주시 일대에서 **산림 현장의 실질적인 안전 보건 체계 구축을 위한 '2026년 임업 기계 현장 시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시연회는 기존의 인력 중심 작업 방식에서 기계화 작업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새롭게 발생할 수 있는 현장 위험요인을 사전에 도출하고, 이에 맞는 맞춤형 안전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는 기술인회와 원목생산협회 관계자들을 비롯해, 산림기술연구원, 산림 안전 전문가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시연회에서는 임업 기계 장비인 ▲트리펠러 ▲쓰그래플 ▲우드그래플 등을 활용해 현장에서 위험도가 높은 '산불·병해충 피해목 및 걸림목의 안전한 제거 공법'을 직접 선보였다.

이어 진행된 종합토의에서는 산림 작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으며, 수렴된 의견은 향후 산림사업 현장의 맞춤형 안전 가이드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현장 전반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통제된 가운데 진행되었다. 시연 중 안전반경 내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참석자 전원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했다.

아울러 현장 전 과정을 안전보건 콘텐츠로 제작·촬영해 향후 산림기술인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기술인회 관계자는 "이번 시연회를 통해 도출된 위험요인 분석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산림 현장 맞춤형 안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으로 보는 한국산림기술인회 활동 The Korea Forest Engineer Association Activities



임업 기계 현장 시연회



한국산림기술인회 임원 간담회 개최



담양군청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태백국유림관리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시도지회장 소통 간담회 개최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대전공원관리사업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춘천국유림관리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홍천국유림관리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인제국유림관리소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김천시 산림조합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제1기 산림복원기술자 취득과정



# 3+4월호 이벤트 당첨자 발표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 이 \* \* (4237)
- ✓ 송 \* \* (7070)
- ✓ 정 \* \* (8703)
- ✓ 손 \* \* (0928)
- ✓ 최 \* \* (4984)

당첨되신 분들께는 개별 연락을 통해 경품을 발송 드릴 예정입니다.



# 산림기술 소식이 ★ 소식지 설문조사

EV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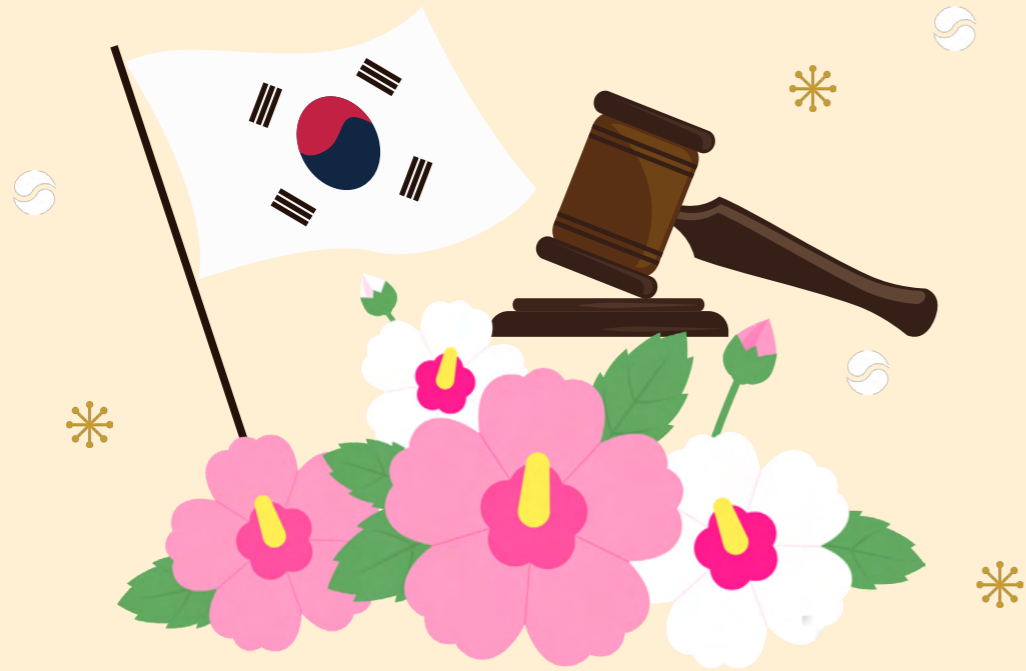
설문조사에 참여하신 회원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보다 유익한 소식지로 거듭나기 위한 소중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참여기간 2026. 06. 30(화) ~ 08. 14(금)
- 경품지급 참여자 중 10명 추첨 경품 개별 발송
- 결과발표 2026. 9월 초 예정(소식지 당첨자 발표)

[참여하러가기](#)



# 7~8월 휴무 안내

7월 17일과 8월 17일은 법정공휴일로  
아래와 같이 휴무 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무 안내

제헌절  
**7월 17일 (금)**

광복절(대체휴무)  
**8월 17일 (월)**

해당기간 민원서비스가 중단되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서비스는 이용 가능합니다.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 대상

# 한국산림기술인회 숲을 담은 '한 컷' 모집 안내

여러분이 마주하는 숲의 오늘을 공유해 주세요.  
현장의 산림기술인의 생생한 삶이 담긴 사진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기록을 기다립니다.

## 모집대상

한국산림기술인회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 산림기술자(개인)
- 산림사업체(업체)

## 모집내용

- ✓ 생생한 산림 현장 모습
- ✓ 아름다운 풍경 및 특색있는
- ✓ 산림 관련 자유주제

## 이메일신청

[members@tkfea.or.kr](mailto:members@tkfea.or.kr)

Vol.31  
산림기술  
소식 N

2026년 05+06월호

한국산림기술인회 소식지